

열여덟 어른의 홀로서기, 울타리가 되어 드립니다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반주자와 함께하는 시행착오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청년의 특권 중 하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나 홀로, 가족이나 지인 등 울타리가 없는 청년들에겐 실패는 좋은 경험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커다란 좌절일 수 있다.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의 보호종료 청소년 통합자립 지원사업 '반주자와 함께하는 시행착오 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연계해 소외된 청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데서 출발한다.

좋은 어른을 만나,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일

'반주자'라고 하면 흔히 피아노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伴奏者)을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마라톤에서 경주자 옆을 함께 달리는 사람(伴走者)을 의미하기도 한다. 상대를 도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는 조력자를 일컫는 것이다.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보호체계 아래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어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반주자는 꼭 필요한 존재다. 그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함께하기 때문이다.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사회적기업 모미코와 함께 보호종료 청소년을 돕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이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해 특히 주목한 부분은 바로 기댈 곳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소외·아동 청소년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졌다.

사업 첫 해인 2019년 7월, 프로젝트에 함께할 참여자 모집부터 시작했다. 마포구를 중심으로 은평구, 강서구까지 지역을 넓혀 도움

의 손길이 필요한 보호종료 청소년을 찾았고, 이들이 퇴소 후 안전하게 생활하며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반주자들과 다양한 소모임을 구성해나갔다.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인 인생설계의 경험을 제공하고 존재의 소중함을 찾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가족 관계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한 청소년에 비해 보호종료 청소년은 매우 순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회로 나설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원칙상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하지요. 그 때 누군가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들의 나중이 달라져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길잡이가 되어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금전적으로 갈취를 당하기도 하고 나쁜 일에 얽히기도 하죠.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어른을 만나게 해주고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최은주 팀장은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힘주어 말한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 오늘에 이르게 했다. ‘반주자와 함께하는 시행착오 프로젝트’에서 반주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 그룹은 삶을 살아가는 데 실질적인 방법과 기술을 알려주는 ‘동네반주자’이고, 두 번째 그룹은 정서적인 기반을 형성하는 ‘선배반주자’이다.

여기서 동네반주자는 행정, 노무, 법률 등을 돕는 ‘사회 안전망’, 요리, 쇼핑, 세탁, 청소 등을 가르치는 ‘일상생활 지원망’,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커뮤니티 순환인턴십’으로 세분화된다. 주민센터, 경찰서, 노무법인, 민간봉사단 등이 동네반주자가 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자신의 삶에 보다 더 활기차게, 의욕적으로


“보호종료 청소년들과 처음 만났을 때 자신감이 없었던 모습이 잊히지 않아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보지 않아서인지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도 주저하곤 했어요. 정답이 없는 데도 답변을 망설이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 2년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게 생겼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늘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달성해가는 모습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람과 책임을 느낍니다.”

이 사업을 초기부터 함께해온 연은정 사회복지사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눈에 띄게 변화하는 점에 주목했다. 한 보호종료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관심이나 능력보다는 돈을 버는 일을 우선시 했다. 그런데 동물보호 시민단체에서 인턴십 과정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진로를 동물행동교정사로 정했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현재는 ‘코리

아경찰견훈련소’에서 일하고 있다.

“아직 보호종료가 되지 않았지만 향후 맛있게 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양말 브랜드를 론칭했죠. 여러 아이템 중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 양말을 선택하고 네이밍부터 디자인, 포장, 판매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훗날 사회에 나갔을 때 분명 맨 땅에 헤딩이 아니라 기존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컨소시엄으로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같이 하는 사회적기업 모미코 이성재 대표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 무언가를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한다. 더불어 실패했을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고 어깨를 다독여줄 주변 사람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누군가에겐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이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 사업이 바로 그 간극을 메우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반주자와 함께하는 시행착오 프로젝트’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이다. 혼자가 아니라 많은 이의 든든한 지원과 지지 속에서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의 힘찬 발걸음은 계속될 예정이다.  글 김지영



반주자와 함께하는 시행착오 프로젝트의 성과 공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